

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제도와 최근 동향

1. 정치제도

□ 내각책임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

-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, 내각책임제 요소를 대폭 반영하고 있음.
-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나, 의회에서 선출됨(하원 다수당의 의장이 대통령이 됨).
- 대통령은 하원 해산권을, 의회는 대통령 및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음.

□ 의회, 행정부, 사법부의 3권 분립 체제

- 의회는 양원제로 각각 5년 임기의 하원(National Assembly)과 상원(National Council of Provinces)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하원의원은 400명으로,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됨.
- 상원의원은 90명으로, 9개 주 의회에서 10명씩 선출함.
- 행정부는 대통령, 부통령, 부처 각료(장관 및 부장관)들로 구성됨.
-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 겸 정부수반으로 군의 최고통수권자임.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.

-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을 승계하며, 대통령은 권한 행사 시에 부통령과 상의하여야 함.
- 각료는 62명(34개 부처)이며 대통령이 임명함.
- 법원은 하급법원(Magistrates Court), 상급법원(High Court), 대법원(Supreme Court of Appeal)으로 구성됨.
- 대법원장은 7년 단임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을 겸직함.
- 모든 법관은 법무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, 의회의 요구가 없는 한 해임되지 않음.

2. 주요 정당

□ 아프리카민족회의 (African National Congress: ANC)

- 264개 의석(66.0%)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으로 제이콥 주마(Jacob Zuma) 대통령이 의장임. 1994년에 남아공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해 넬슨 만델라(Nelson Mandela)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1999년, 2004년, 2009년 총선에서도 모두 승리하며 현재까지 17년 동안 집권하고 있음*.
- * 만델라 대통령에 이어 1999년에는 타보 음베키(Thabo Mbeki) 의장이 이끄는 제2대 흑인정부가 출범하였고, 음베키 대통령은 2004년에 재선되었음.
- ANC는 정부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조직적인 투쟁을 위해 1912년에 남아공 사법수도인 블룸폰테인(Bloomfontein)에서 결성되었음.
- 설립 초기에는 토지법*과 통행증명서 등에 반대하는 온건투쟁을 전개하였으나, 1940년대 인종차별정책이 강화되자 만델라 전 대통령이 주축이 되어 시위와 파업 형태의 적극적인 투쟁방식으로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하였음.
- * 1913년에 제정된 법으로 흑인들의 토지소유를 전 국토의 7.8%로 제한함.
- 이후 ANC는 정부에 의해 불법 조직체로 지정되고 만델라 등 지도부가 대거 체포되었으나, 앙골라, 모잠비크 등 해외에서 무장투쟁을 지속하였음. 1990년에 이르러 ANC가 합법적 조직으로 인정되고 만델라가 석방되었으며 1994년에는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.

- ANC는 정치·경제적 속박으로부터 흑인들의 자유 및 삶의 질 향상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없는 통합 민주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□ 민주동맹 (Democratic Alliance: DA)

- 67개 의석(16.7%)을 보유한 제1야당으로, 당 대표는 웨스턴 케이프(Western Cape) 주지사인 헬렌 질레(Helen Zille)임.
- 백인계가 주요 지지층이며, 총선에서 1999년 38석, 2004년 50석, 2009년 67석을 획득하는 등 점차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음.
- ANC의 좌파성향 정책에 반대하는 중도노선을 추구하고 있음.

□ 국민회의 (Congress of the People: COPE)

- ANC에서 탈당한 음베키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으로 구성된 국민회의는 30개 의석(7.5%)을 보유한 제2야당으로, 당 대표는 모슈아 레코타(Mosiua Lekota) 전 국방장관임.
- 당내 두 정치거물인 음베키 전 대통령과 주마 대통령의 대립, 음베키 전 대통령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대한 ANC 내 주류세력의 불만, 남아공 내 최대 부족이며 주마 대통령의 출신 부족이기도 한 줄루(Zulu)족과 그 외 소수 부족간의 갈등 등이 분당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음.
- 사회정의 구현, 인권 향상, 지속적인 민주주의 실현, 국민의 자주권 확보 등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음.

3. 최근 정치 동향

□ 집권당(ANC)의 대중적 지지기반은 확고

- 2009년 4월 총선에서도 집권당인 ANC가 66%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확고한 가운데, 2009년 5월에 주마 ANC 의장이 대통령에 취임함.

- 총선에서 ANC는 의회 총 400석 중 264석, 제1야당인 DA가 67석, 2008년 12월에 ANC의 이탈세력이 창당한 COPE가 30석, 잉카타 자유당(IFP)이 18석, 그리고 기타 군소정당이 21석을 각각 획득함.

- 흑인들이 인구의 80%를 차지하고 있어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투쟁을 지속해 온 ANC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확고하고, ANC를 대체할 정치세력이 없어 ANC의 독주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2011년 5월 지방선거에서도 집권당이 승리

- 2011년 5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ANC는 62%를 득표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하였으나, 2006년(66%)에 비해서는 다소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- 반면, 제1야당인 DA는 전통적 강세지역인 남서부의 웨스턴 케이프타운(Western Cape Town)과 더불어 이스턴 케이프타운(Eastern Cape Town)에서도 선전하면서 2006년보다 9%포인트 높은 24%의 지지율을 획득함.
 - 이는 40%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, 빈부 격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선거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.

□ 집권당 내 갈등 심화

- ANC는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진보성향의 남아공 노동조합총연맹(Congress of South Africa Trade Union: COSATU) 및 남아공 공산당(South African Communist Party: SACP)과의 정책 이견과 권력배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.
 - ANC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, COSATU와 SACP는 공공 부문 확대를 통한 일자리 공급 확대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음.
- 또한 ANC 내에서도 급진성향의 ANC 청년연맹(ANC Youth League)이 광업을 포함한 일부 산업의 국유화 등 반시장적인 정책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.

- 주마 대통령은 집권당 내 갈등을 완화하고 자신의 내부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10월에 9명의 장관과 14명의 차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였음. 2012년 ANC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마 대통령은 집권당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내부 결속력을 다져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.

<자료제공 :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원>

책임조사역 박 대 원(☎ 02-3779-5723)
E-mail: parkdw@koreaexim.go.kr